

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우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린 팀의 축복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 이들이 불신자들에게 깃발하고 성전과 교회를 회복하는 홀리 메이슨이 되었다. 우상과 흑암 세력이 덮은 현장을 살린 홀리 리더가 되었다. 포로로 간 자리에서 영적 씨앗이 되어 237 나라를 살리는 홀리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들 다음에 세워진 또 다른 팀이 있다. 모르드개와 에스더라는 사람이다. 친척 관계이다. 정확히 말하면 모르드개는 부모가 없는 에스터를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꾼 영적 씨앗으로 키워낸 사촌 오빠이다. 모르드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모와 교사 세미나에서 다루고, 그를 통해 세워진 에스더에만 집중해보겠다.

1. 에스더의 특징이 무엇인가?

1) 일단 부모가 없이 자랐다. 고아였다는 말이다.

- ① 사람들의 편견에 부모가 없이 자랐다고 하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극단적으로는 타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에스더는 반대였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고, 그 축복 속에 자란 것이다.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 모르드개이다.
- ②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원죄, 사단, 운명, 지옥)에서 해방 받았기 때문이다(골8:1-2).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엡1:3-5).

절대 혼자 아니다. 그 분이 길이 되어주시고(요14:6), 워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

2) 어느날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기회가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2:7에 보면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사랑스럽고(lovely) 아름다운(beautiful) 처녀였다”라고 했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웠다는 말이 아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한 것이다.

이 에스더가 가진 영성(하나님과의 관계), 인성(사람과의 관계), 지혜와 전문성 등 총체적 매력이다.

예수님도 호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요5:3:2),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눅2:52)고 기록한다.

3)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다섯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왕(크세르크세스)의 왕후라는 씨앗으로 선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인도에서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까지 정복하고 다스린 나라이다(1:1).

그냥 씨앗이 아니다. 강대국에서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2. 이 에스더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가?

1) 이 에스더가 쓰임 받을 수 밖에 없는 위기가 온다.

항상 그렇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기가 아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훈련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대에 쓰임받는 기회가 된다.

2) 반드시 이 위기와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우리의 대적 마귀이다(엡6:12). 이 눈을 열어야 한다.

① 에스더를 비롯한 전 유대 백성을 완전히 몰살시키려는 자가 생긴 것이다.

당시의 왕 다음의 권력자인 하만이란 자다. 이 하만은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 족속이다.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했다. 왜 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갈 때 제일 먼저 길을 막고 공격해온 자들이다.

여호수아가 싸워 승리하고 “여호와와 닮은”이라는 말이 만들어진다(출17:15).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뜻이다.

사울 왕 때에 완전히 멸망시킬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이 그 기회를 놓치고 책망을 받기도 한다(삼상15:9)

이런 사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영적 메시지이다.

② 지금도 마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지게 하는 자다(벧전5:8).

하만이 왕에게 큰 돈을 바치면서 유대 민족이 왕의 법을 따르지 않으니 멸망시켜야 한다고 계략을 짰 것이다.

마귀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악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결론이 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 만큼 우리가 승리하고, 누릴 축복과 응답이 따로 있다(욥45:5, 눅22:31-32, 계21:7)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그가 매달려 죽고, 그 하만대신 모르드개가 나라의 총리가 된다.

왕이 잠이 안 와서 궁궐의 기록을 보다가 과거에 모르드개가 왕에게 큰 공헌을 하고도 잊혀졌던 일이 발견된다.

그래서 성도의 숨은 기도, 숨은 헌신과 충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갈6:9)

3) 이런 위기의 시간에 에스더가 한 일이 무엇인가?

본문에 있는 대로 삼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다. 유명한 고백을 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이 불러 주어서 이 위기를 말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것이 제국의 법이었다.

그래서 더 이 결단을 한 것이다. 적어도 세가지 의미가 그 기도 속에 있었다(10가지 삶).

① 하나님이 자기를 왕후로 세운 이유와 미션을 찾은 것이다. 이것이 파수 망대의 축복이다.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한다.

그 소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 위치에 세운 이유와 미션을 찾았다.

가정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시대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을 찾는 사람이 영적 씨앗이다.

② 에스더가 하나님의 능력(성령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바라본 것이다. 이때 플랫폼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때 모든 것이 나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237 모든 민족 살릴 수 있도록 모여진다.

왕이 잠이 안 와서 역사를 알게 되고, 왕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마음을 뺏겨 돕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전무후무한 증거들이 나오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들이 전부 이 증거를 기록한 것이다.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라(막9:29).

③ 에스더는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영적 안테나의 축복이다.

지금 살 생각을 하지 않고, 혹시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그 뒤에 준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이다.

오늘을 보고 속지 말고, 오늘을 승리하고, 오늘 뒤에 오는 내일과 미래와 영원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오늘 내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본 것이다(막10:29-30)

이것을 하나님과의 영적 어떤 계약이라고 한다.

결론-시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3시대의 언약을 잡으라. 앞으로 이 3시대를 살릴 씨앗 램넌트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 교회에 이런 램넌트 키우는 씨앗 스쿨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에스더 같은 청년의 때까지는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1세대도 할 일이 많다. 그래야 이 위기 때에 237 살리기 때문이다.